

KISDI STAT

REPORT

ВЕБОВІ
KISDI

2015. 4. 30 / Vol. 15-02


정보통신정책연구원
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

가구의 결합상품 이용추이 분석 : 2012 ~ 2014

김옥준
전문연구원, ICT통계분석센터

III 활용데이터

- 정보통신정책연구원(KISDI)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매년 수행
- 단말기, 플랫폼, 콘텐츠 패키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다매체 환경에서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개발
-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가입 현황에 대한 2012~2014년 횡단면 가중치가 적용된 가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함
- 표본추출틀 :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, 표본추출방법 : 층화2단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한 조사구 추출

III 분석 목적 및 방법

- 본 리포트는 2012~2014년 3년 동안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결합서비스 가입 추이 및 결합서비스 유형 변화를 분석
- 일반가구의 결합서비스 가입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기업고객(소매상 포함)의 결합서비스 가입 현황은 미디어패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결합서비스 상품을 2개 이상의 복수로 가입한 가구들의 경우에 첫 번째 결합상품만을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임

III 결합서비스 가입 가구의 최근 3년 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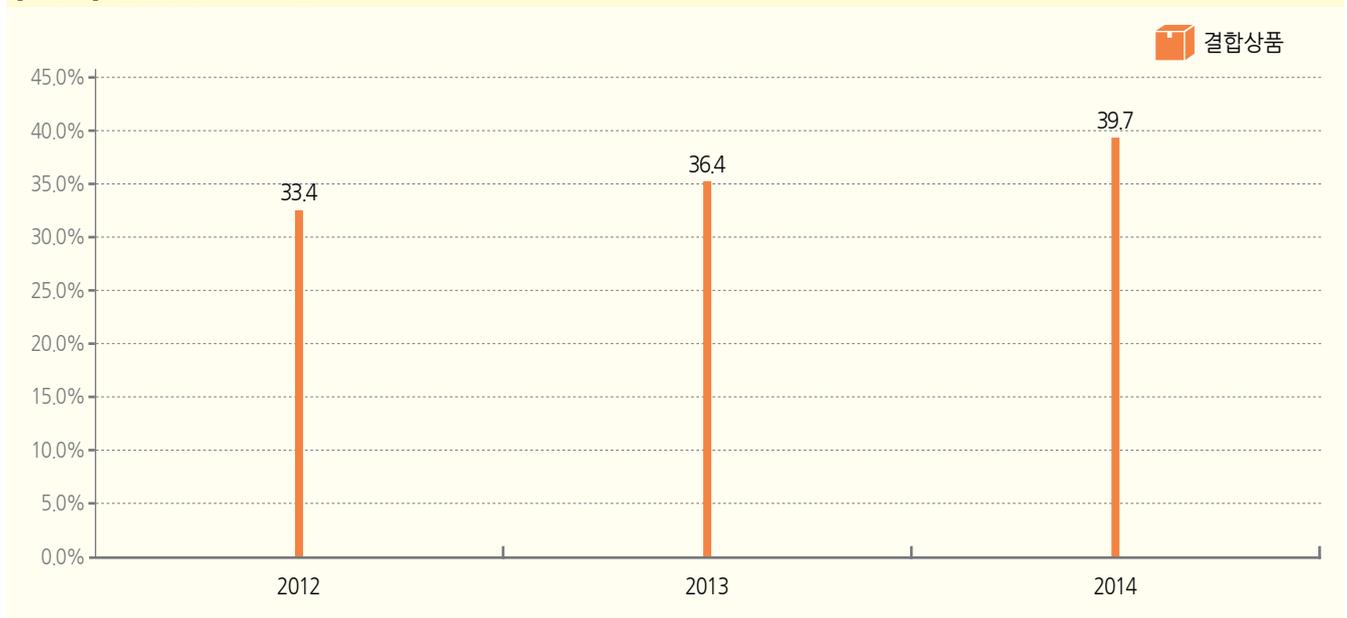
- 최근 3년 간 결합서비스 가입 가구의 비율은 2012년 33.4%, 2013년 36.4%, 2014년 39.7%로 꾸준히 증가
- 2012~13년 3.0% 포인트, 2013~14년 3.3% 포인트 각각 상승

[표 1] 표본 및 결합가구수

	2012	2013	2014
표본가구수	4,432	4,381	4,313
결합가구수	1,479	1,597	1,711
결합상품가구비율	33.4%	36.4%	39.7%

[그림 1] 결합상품 가구 비율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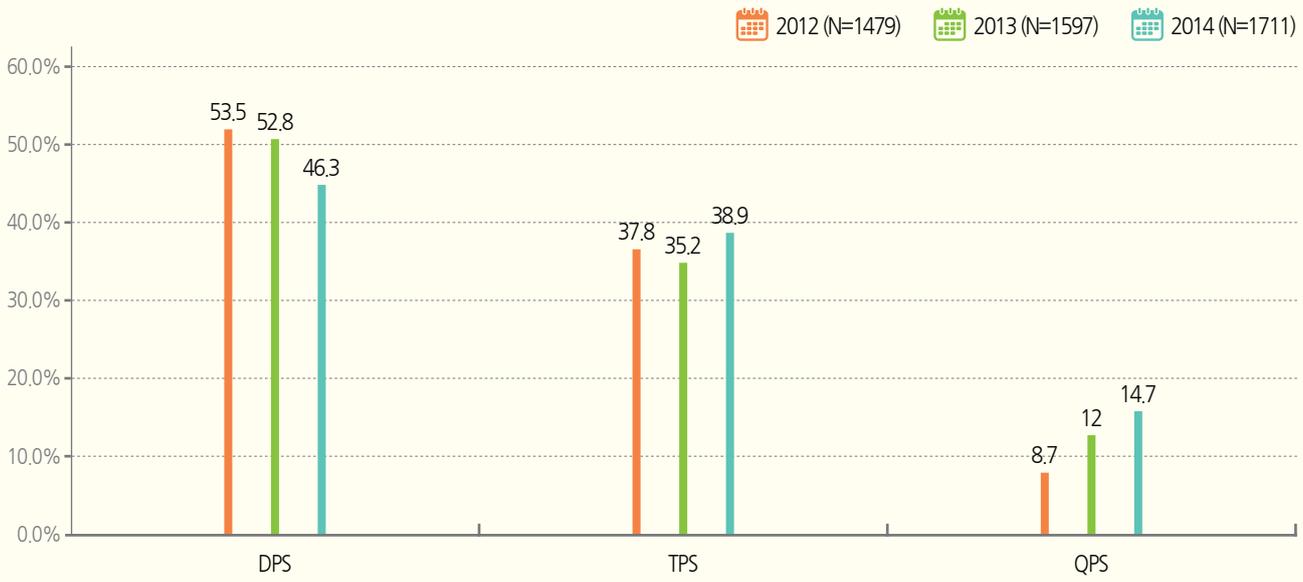


III 유형별로 DPS, TPS, QPS 가입 비율은 서로 다른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

- DPS(double play service): 2종 결합서비스, TPS(triple play service): 3종 결합서비스, QPS(quadruple play service): 4종 결합서비스를 각각 의미함
- DPS는 2012~13년 53.5%에서 52.8%로, 2014년에 46.3%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, 최근의 하향추세가 빨라짐
- TPS는 2012~13년 2.6% 포인트 하락했다가, 2013~14년 3.7% 포인트 상승
- QPS는 2012~13년 3.3% 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2014년에 14.7%로 2.7% 포인트 올라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음
- DPS는 하락하는 추세이고, QPS는 상승하는 추세, 그러나 2014년 기준 DPS는 TPS보다 약 3배 큼

[그림 2] 결합서비스 유형별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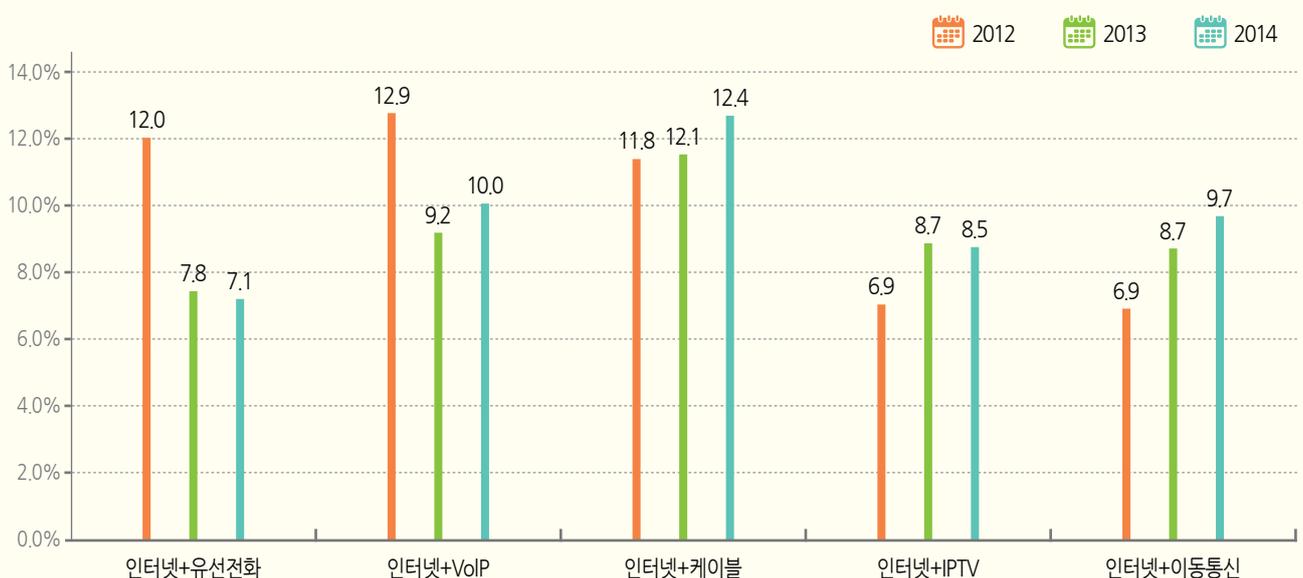


III DPS 유형별 추이

- 유선인터넷+유선전화는 지속적으로 하락
- 유선인터넷+VoIP는 2012년에 가장 높은 가입률(12.9%)을 기록했으나, 2014년에 10.0%로 떨어짐
- 인터넷+케이블은 3년 동안 줄곧 상승하면서, 2014년에 DPS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결합서비스 유형가운데 가장 높은 가입률(12.4%)을 기록함
- 인터넷+이동통신은 DPS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

[그림 3] DPS 유형별 추이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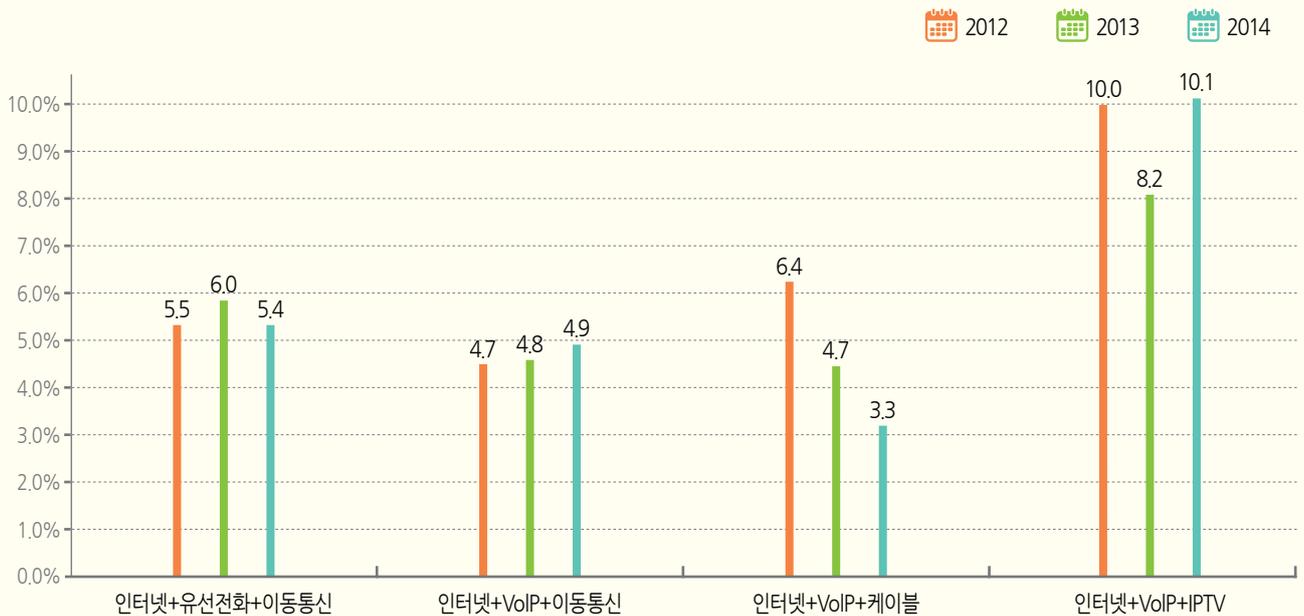


TPS 유형별 추이

- 인터넷+VoIP+IPTV는 2012~14년 동안 10.0%, 8.2%, 10.1%를 각각 기록하여 정체이나, 3년 동안 줄곧 가장 많이 가입하는 TPS임
- 인터넷+VoIP+이동통신은 해마다 0.1% 포인트씩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고, 인터넷+VoIP+케이블은 2012~14년 동안 6.2%, 4.5%, 3.2%를 각각 기록하며 해마다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음

[그림 4] TPS 유형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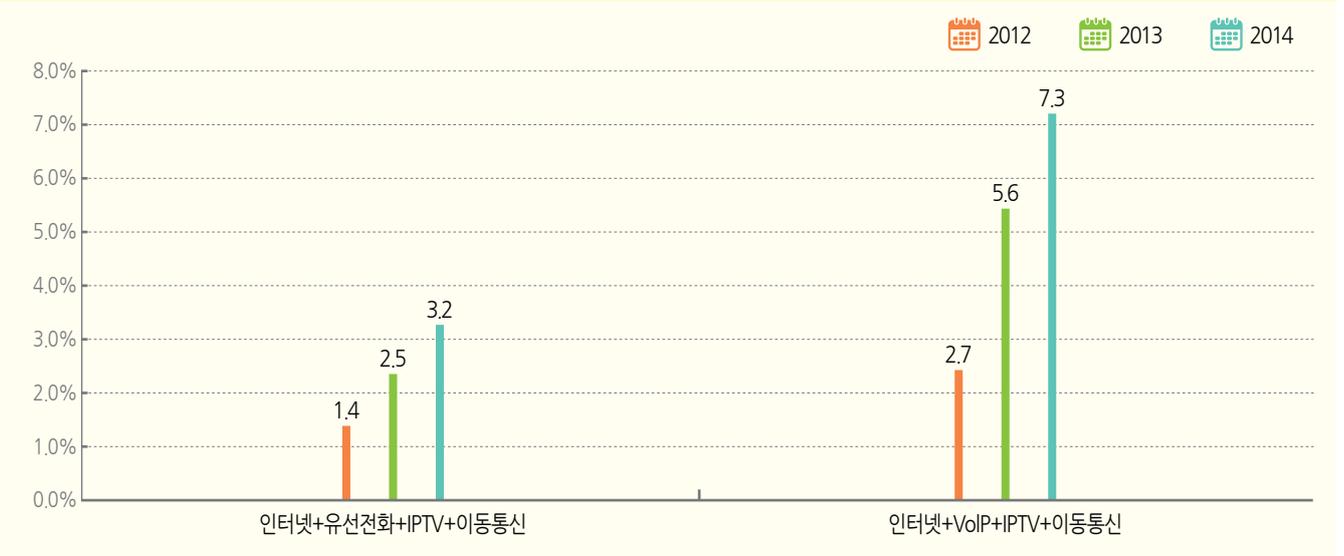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III QPS 유형별 추이

- 가장 많은 가구들이 가입하는 QPS는 인터넷+VoIP+IPTV+이동통신 유형이며, 2012~2014년 2.7%, 5.6%, 7.3%를 각각 기록하였음
- 인터넷+유선전화+IPTV+이동통신은 2012~2014년 1.4%, 2.5%, 3.2%를 각각 기록했음

[그림 5] QPS 유형별 추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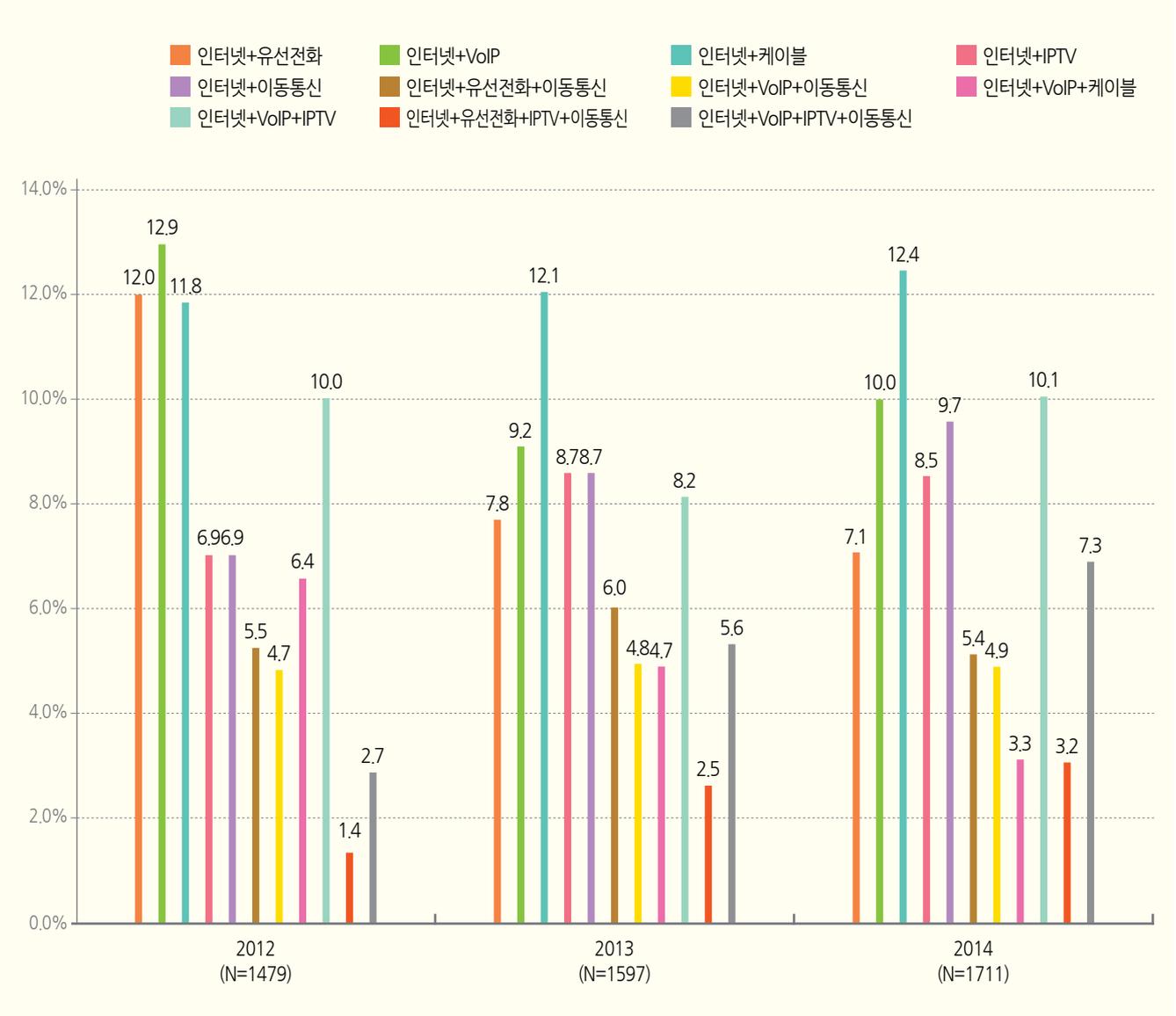


[표 6] 주요 결합서비스 유형

결합서비스 유형	2012	2013	2014
인터넷+유선전화	12.0%	7.8%	7.1%
인터넷+VoIP	12.9%	9.2%	10.0%
인터넷+케이블	11.8%	12.1%	12.4%
인터넷+IPTV	6.9%	8.7%	8.5%
인터넷+이동통신	6.9%	8.7%	9.7%
인터넷+유선전화+이동통신	5.5%	6.0%	5.4%
인터넷+VoIP+이동통신	4.7%	4.8%	4.9%
인터넷+VoIP+케이블	6.4%	4.7%	3.3%
인터넷+VoIP+IPTV	10.0%	8.2%	10.1%
인터넷+유선전화+IPTV+이동통신	1.4%	2.5%	3.2%
인터넷+VoIP+IPTV+이동통신	2.7%	5.6%	7.3%
합계	81.1%	78.4%	82.0%

[그림 6] 11개 주요 결합서비스 유형별 추이

(단위: %)



III 결합상품 내 개별서비스 빈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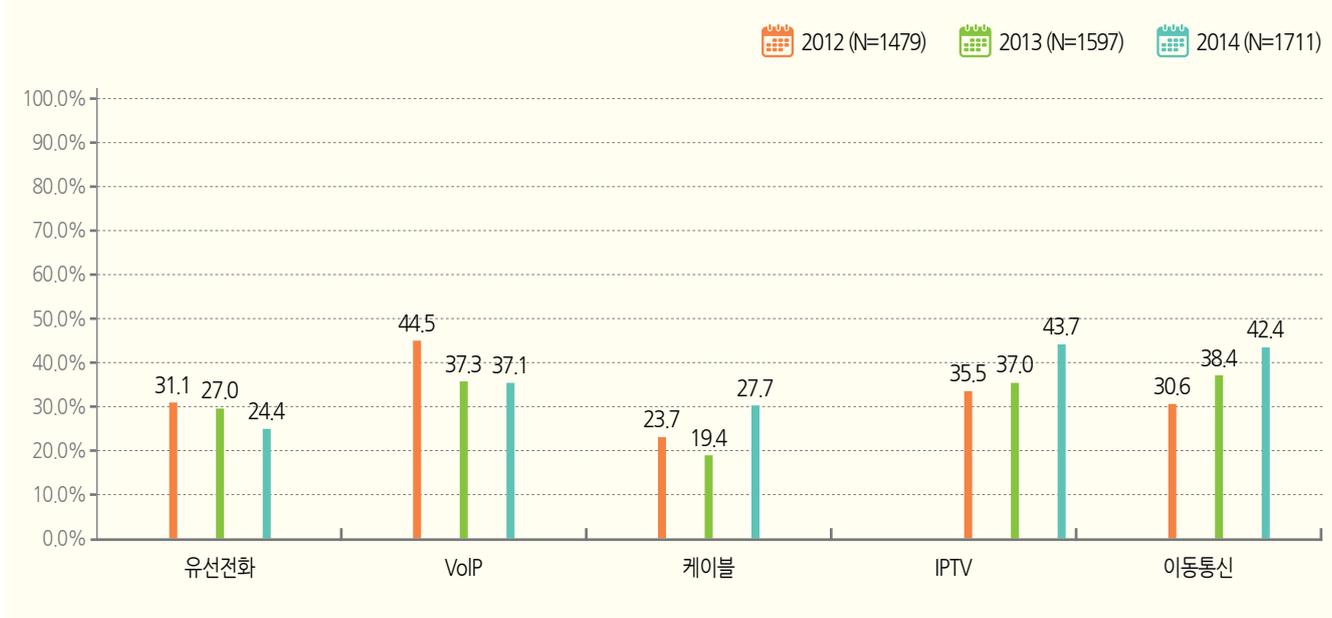
- 유선인터넷은 모든 결합상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로서 90% 이상을 차지함
- 즉 유선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구의 결합상품 가입 경우도 조사되었음
- 유선인터넷이 2013~2014년 3% 포인트 하락했으며, 유선전화의 하향세는 뚜렷하고, VoIP 경우도 정체하는 수준
- 케이블, IPTV, 이동통신은 계속 상승하는 추이

[표 7]

	2012	2013	2014
유선전화	31.1%	27.0%	24.4%
VoIP	44.5%	37.3%	37.1%
케이블	23.7%	19.4%	27.7%
IPTV	35.5%	37.0%	43.7%
이동통신	30.6%	38.4%	42.4%

[그림 7] 결합상품 내 개별서비스 빈도추이

(단위: %)



시사점

- 유선인터넷 서비스는 여전히 결합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적 서비스이며, 결합서비스 가입 가구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
- 결합상품에 속한 개별서비스들의 개수도 평균적으로 늘어나서 가구들은 TPS 혹은 QPS 유형을 선호함. 이는 결합서비스 가입을 통해서 요금할인, 납부, 가입 및 해지 절차의 편리성, 동일사업자로부터의 품질 제고 등의 혜택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을 의미
- DPS가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.3%(2014년)로 아직은 절대적으로 많지만, 3년 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, 유선전화 혹은 VoIP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율이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이 DPS 하락의 원인으로 보임
- 반면 케이블, IPTV, 이동통신이 결합한 DPS 유형들은 모두 상승, 유선인터넷+유선방송 이용이 늘어나고, 이동통신이 유선전화를 대체하고 있으며, 인터넷전화의 경우는 이동통신이 조금 약한 정도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
- TPS 종류들 가운데에서도 가입비율이 정체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유형이 유선인터넷+VoIP+이동통신

및 유선인터넷+VoIP+IPTV

- 모든 결합서비스 유형들 가운데 3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유형은 유선인터넷+VoIP+IPTV+이동통신 QPS 상품이며, 2012년 2.7%에 불과했으나, 2013년 5.6%, 2014년 7.3%를 기록함
-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VoIP, IPTV, 이동통신이 포함된 TPS 혹은 QPS가 결합서비스의 가장 주된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됨
- 결합상품은 전통적으로 유무선 대체를 완화해 왔고, 이러한 현상은 최근 3년 우리나라의 결합상품 가입현황에서도 예외 없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, 다만 2007년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서비스 규제를 완화했을 당시에는 유선인터넷이 유선전화의 대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면, 최근 3년 동안에는 결합서비스 내 이동통신이 유무선 대체를 늦추고 있음을 시사